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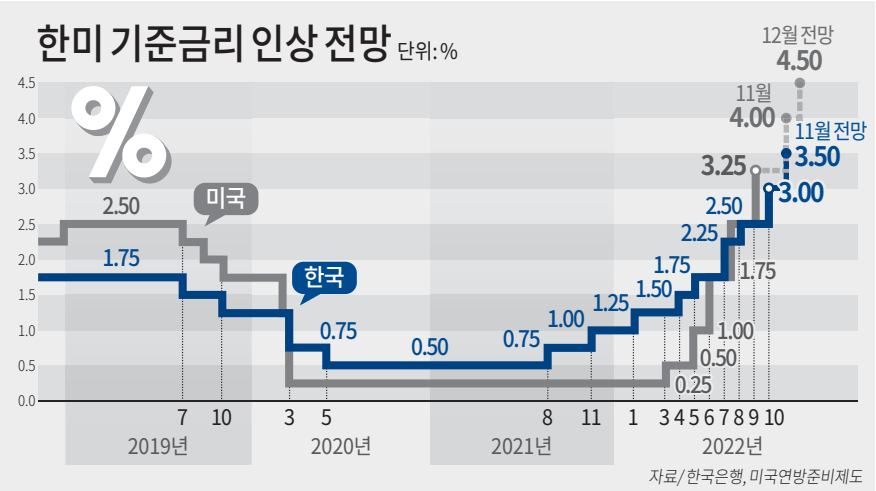
[경제종합] 3高에 소비위축 추세도 올스톱 연말 특수 직격타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336.87 (+1.65)	코스닥	697.37 (-2.68)
금리 (미국 3년)	4.095 (+0.027)	환율 (원/달러)	1417.40 (+0.20) (2일)



최종금리 3.75% 예상 내년까지 인상 가능성

고금리시대 위기의 한국號

〈上〉 금리인상 언제까지

대한민국호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금리는 오르고, 빚은 늘고 있다. 물가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라빚과 가계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율상승과 수출 고전으로 무역적자도 심상치 않다. 고금리시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美 12월 속도조절 기대감에도 국내 소비자물가 5%대 이어져 한은, 추가 금리인상 불가피

레고랜드 發 채권시장 불안감 전문가들 “빅스텝은 피할 듯”

한국은행이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통화긴축과 더불어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금리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연속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증가 등으로 소비위축과 경기 둔화 가능성도 커졌다.

◆美 속도조절에...0.25%p 인상 무게 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가 연 3.50%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 위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금융시장에서는 24일 0.25%포인트(P)와 0.50%p 인상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조

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빅스텝(한 번에 0.5%p 인상)은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현지시간으로 1~2일 이틀간 1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개최된다. 금융시장에서 예상한 FOMC의 인상폭은 0.75%p다. 연준은 6월과 7월, 9월 3연속 사이언트스텝(0.75%p 인상)에 나선 바 있다. 미국의 소비 지출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정도로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관련은 12월 FOMC다. 9월 FOMC 의사록에서도 ‘몇몇(several) 위원들은 특히 현재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와 금융 환경에서 경제전망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긴축의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12월 FOMC에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금리인상, 내년까지 이어질까?

하지만 연준의 속도조절에도 한은의 금리인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좀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1년 전보다 5.7% 오르며 석 달 연속 5%대 상승세다.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여왔지만 석 달 만에 다시 확대된 것이다. 석유류 기름폭 축소 흐름이 이어졌으나 가공식품 기름세 확대, 전기·도시가스 인상 등으로 5%를 상당 폭 웃도는 수준을 이어갔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높은 기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면에 계속)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쌓여가는 재고... 반도체 수익성 확보 특명

10월 D램 가격 전년비 40% 하락 상성, 고성능 메모리 확대 전격음

반도체 업계가 ‘치킨 게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에 돌입했다. 수익성 확보와 신시장 개척이 관건이다.

2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0월 D램 가격은 전달보다 20%, 전년보다는 40% 가량 하락했다.

DDR4 8Gb 기준으로는 2달러 초반대다. 연초만 해도 3달러 중후반대였지만 절반 가까운 가격으로 추락했다.

이같은 가격대는 범용 제품을 기준으로 5년래 최저수준이다. 2016년 말까지 DDR3 4Gb D램이 1달러대에 팔리기도 했지만, 2017년부터 폭등하면서

순식간에 3달러를 돌파한 후 2019년 5달러대로 치솟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2달러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다시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면서 4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D램 가격 하락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요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탓. TSMC 등 파운드리 업계에도 ‘오더컷’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치킨게임’까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긴 했지만, 미국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감산을 선언하면서다. 10여년 전 치킨게임 당시 업계가 추정했던 주요 D

램 원가는 1달러 수준, 최근 선단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소폭 상승했을 수는 있지만, 생산성도 오른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반도체 업종 특성상 꾸준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수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0년 치킨게임을 거친 후 D램 시장 점유율을 30%대에서 40%대로 끌어올린 바 있다. 생산성을 유지하며 수요 급증에 대응한 결과, 기술적으로도 격차를 벌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서버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 등 압수수색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설치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3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 모습. (관련기사 5면)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설치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3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 모습. (관련기사 5면) /뉴스1

공공요금 인상 여파... 소비자물가 5.7% 상승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 전환 전기·가스·수도요금 23.1% ↑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5.7% 오르며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김장철 수요와 맞물려 당분간 5%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전년 동월 대

비 5.7% 상승했다. 6월과 7월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8월 들어 5.7%로 꺾였고, 9월 5.6%로 상승 폭이 주춤했지만 지난 달 다시 확대됐다.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데는 지난 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도시가스(36.2%), 지역 난방비(34.0%), 전기료(18.6%) 등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률은 23.1%로 2011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았다. 코로나 19 완화로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국

제항공료가 전년 대비 20.0% 오르는 등 공공서비스 물가도 0.8% 올랐다.

먹거리인 농축수산물 물가는 5.2% 올랐다. 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고, 배추(72.3%), 양파(25.4%), 파(24.0%) 등 채소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업제품은 6.3% 상승했다. 경유(23.1%), 등유(64.8%) 등 석유류 가격이 10.7% 올랐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2.4% 하락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3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미 외교장관 통화... “국가 애도기간 중 北도발, 인륜에 반해” /사진 뉴스1
▲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 첫 회의... 재발방지책 논의

▲ 野 “112 신고 79건인데 11건만 공개... 무엇이 두렵나”
▲ ‘참사 부실대응’ 112체계 손본다... 인파사고 매뉴얼 마련



▲ 안철수 “경찰청 문건, 사찰로 볼 수도... 윤희근 즉시 경질”
▲ 日관방, 아소 방한 관련 “총리 특사 아냐... 정상회담, 결정된 것 없어” /사진 뉴스1